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참회와 경건의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자

-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이웃 사랑이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로 연결되어야 -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여섯 주간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로 시작되며 전통적으로는 이날을 '재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른다. 4월 셋째 주일인 16일에 부활절을 맞는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3월 1일에 시작하였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발자취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하는 기간이다. 또한 근신과 자기 절제와 경건의 생활에 더욱 힘쓰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각 교회학교를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 특별히 고난기간의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과 구속의 사역을 묵상하며 온 교회가 해 있는 동안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기도 한다. 부활절에 행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많은 사람이 세



례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성도들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좇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고난의 참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금식을 하기도 하며 기호와 오락을 절제하도록 한다. 그리고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 모은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십자가 뿐만 아니라 탄생과 성장과정, 생애의 모든 것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하는 순례자라면 마땅히 예수님

의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성숙한 신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로서 고난도 함께 하려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회개와 근신과 새로운 결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구속과 부활의 참뜻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3월 새가족 환영회

26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26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새가족환영회를 가집니다.

3월에 등록된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 좌석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광야의 소리

천국시민생활

우리 교회는 설립 초부터 교회의 목표로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구체적인 교육목적을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하였다. 이 지침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점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를 '주일학교'가 아닌 '교회학교'라고 부르고 교육의 내용을 교회생

활 뿐만이 아닌 삶의 전영역에 걸쳐 천국시민의 삶을 살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몇주간 우리는 주일 예배의 설교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 팔복의 교훈을 받았다. 팔복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 누릴 복보다 천국시민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삶의 덕목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죄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거듭난 인간이어야만이 이

해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일반적 상식과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이다.

천국시민생활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가치지향, 삶의 태도, 관심, 실천력, 결단, 세계관, 인간관이 반영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천국시민의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창세기 강해



이종운 목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21장 22 ~ 31절)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권세란 정부를 말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듯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딤후2:1-2). 국가가 바른 길로 가야 교회도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국가와 교회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과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성경은 정부에 대해 때로 악한 것의 대명사처럼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政事)와 권세와 이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엡6:12)라는 구절에서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들이란 곧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탄의 무리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도 요한은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바벨론’ (계18:2), ‘음부에서 올라온 짐승’ (계17:8)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큰 권세들을 이기셨다고 표현합니다(골2:15). 이와 같이 국가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의 상태에 처하기도 하는 모호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방인으로 세상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세상 정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살피고자 합니다.

1. 영역 자주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존중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2절).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과 친지들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개인이 이 사

회의 축복의 통로요, 복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개인과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국제도를 설정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도자와 제도에 대해 존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국가는 서로의 영역과 기능이 다르므로 서로의 영역자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정부가 교회의 사역에 대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영역자주권 윤리입니다.

2. 공통적인 것에 대한 동일한 관심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평화에 대한 관심이 같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즉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23절). 평화를 지키는 편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화평을 만드는 사람(Peace Maker)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공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취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후이므로 아브라함은 항의하여 우물을 돌려받았습니다. 자기의 것이니 돌려받은 것이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일곱 양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28절).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의를 행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안되지만 상대방에 대해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더불어 일함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블레셋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서 여러날을 지내었더라” (34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아비멜렉과는 달랐고 모든 가치의 우선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양심을 따라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요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구실을 다하는 소금으로서 부패한 세상의 방부제요, 맛있는 삶에 의미를 더해줘야 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빛으로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서 이방인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여 등대와 같이 방향을 알려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허리잘린 조국, 희망 있는가?

거리사의 광인처럼 무덤 옆에서 불안, 공포, 탄식의 신음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고 있는 초라한 자신을 보라. 여과없이 흘러들어온 서구문명이 민족주체성을 흔들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실은 우리 내부 깊은 곳에 응어린 죄 덩어리들이 활화산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번 쇠고랑을 끊고 집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광인처럼 국제 사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시키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듯 자학하며 자폭하려는 광기어린 눈초리로 동반자 살을 요구하는 국제 부랑아들이 날로 발광을 하고 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 나 구걸하던 병자처럼 이제는 희망도 없다. 제 힘으로는 끊어진 허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한가지, 오직 한가지 길이 있다면 길이요 생명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민족도 개인도 산다.

찬 양대원의 자격으로 육군사관학교 합동 세례식에 참가하였다. 출근하자마자 토요일인 오늘의 일을 다 마쳐놓고 가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다. 2년 전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신분이어서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이와 같은 일에 참석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꼭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으며 기도하고 준비하니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고 모든 일들이 극적으로 잘 풀렸다.

가운을 입고 찬양대석에 앉아 연습을 마치고 나니 생도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셨을 때에는 씩씩한 생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리를 채웠다.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에 다녀와서

1995년 3월 11일, 맑음

손지희 (가브리엘 찬양대원)

이라는 한 단어가 화살처럼 내 가슴에 다가왔고, 말씀은 살아 운동력있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이 있음을 실감했다. 세례식 후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할 마음들로 가득해지는 은혜를 맛보았다. 지휘하시는 허집사님의 독창으로 고요하게 울려 퍼진 '불길같은 성령이여' 라는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오늘의 은혜 중에 잊지 못할 것이 또한 한가지가 있다. 모든 순서가 마친 후 찬양대원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신 김집사님 가정에서 배운 '남을 부요케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리스도

'저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 자리에 앉았을까?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삼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비를 감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답답해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지체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내 모든 의문을 아시기라도 한듯 설교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셨다. 가슴이 벅차 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믿음'

인의 미소' 다.

오늘 세례를 받은 생도들이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귀한 이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젊은 청년들을 통해 영광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하루였다.



▶새하기를 맞이한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계획을 세우세요”

이수자 (집사, 학원선교회 회원)

해 마다 3월이 되면 온 몸을 감싸는 새로운 설레임과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 같은 감정이 복합되어 묘한 감상에 젖곤 하지요.

'새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새 짝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자신없는 과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내 적성은 인문계냐 실업계냐, 진로, 진학의 문제로 고민 고민...'

목표가 정해진다해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수면시간을 30분 줄이고 하루 일과를 그만큼 일찍 시작해볼까, 친구하고 잠담하는 시간을 아예 포기해?, 학원수강과목은 몇개나 할까, 자습을 해 버릴까?'

학창시절을 흔히들 씨 뿌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가장 알맞는 시기에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돌보아야 하듯이 개인의 일생을 좌우할 귀중한 시기에 자신

의 능력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워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루 하루의 시간관리만큼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생의 경험을 쌓아 오신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천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세운 계획일찌라도 막상 시간이 흐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숙제는 왜 그리도 많은지, 내일 아침 쪽지시험이 있는데 준비는 덜 되었고, 친구는 하필이면 왜 이때 토라져 날 안타깝게 하는지, 작아진 운동화는 언제 다시 구입할까, 체육시간에 별반과 청소까지 하고 오니 몸은 녹초요, 지금내 공부방식은 옳은건가?, 부모님은 왜그리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지...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문제는 '내 몫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했다면 나머지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니 고민은 그만하세요. 간혹 주일에 학교행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대히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길이 열린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학생인 것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누구 앞에서건 천국시민임을 나타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길' 을 가려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며 사모하고 있는가요?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세심하고도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년 이맘때의 좌표가 그것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기독교생다운 계획이어야 하겠습니까. 계획은 여러분이 세우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니까요.

■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상고하는 빌립보서 공부

이 경 혜 (집사, 장년부 교사)

장소가 매우 부족한 관계로 장년들을 위한 별도의 성경공부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아쉬웠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년부는 현재 박형용 목사님의 지도로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꿰뚫는 듯한 강의를 통해 그간 별 일 아닌 일에도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곤 했던 것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것같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도 정말 그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study)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의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공부하니 내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바른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생기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개인의 구주임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장년부는 해당 연령층이 넓어서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과 젊은 부부들,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싫어 눈을 반짝이며 열심인 분들을 보며 서로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배웁시다.

▶ 제6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⑥

방글라데시 교회

- ① 회교국인 방글라데시에도 기독교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힌두교도들과 부족주민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인의 성장율은 전인구 성장율의 두배에 이르렀다. 방글라데시 침례교협회, 하나님의 성회, 방글라데시 자유침례교회는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담대한 교회개혁의 목표도 설정되어 있다. 2000년까지 이 나라의 모든 종족과 464개의 모든 행정구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잘 실현되도록 기도하자.
- ② 방글라데시의 1억 회교도들 대부분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 철저한 회교도들이 아니다. 따라서 제자훈련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사역자는 1985년 25명 정도였는데 지금도 별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 ③ 주요 공동체 내에서의 교회개혁이 결실해 왔고 마을 교회와 토착인 가정 모임도 배가 되었다. 이러한 모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④ 선교사역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원조를 너무 강조하여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부진한 경향이 있다. 많은 기회가 선교의 주된 소명을 이루는 데 바로 사용되도록 기도하자.

• 목회자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월 23(목) ~ 24(금), 양일간 전남 광주 제일교회당에서 열리는 전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 특별집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집회를 인도한다.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1995년 3월 27일 - 6월 5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주제 - 『목회와 영성』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27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교회갱신과 영성 임 옥 목사(한기총 회장)
4/3		선지자들의 영성 김정우 박사(총신대 교수)
4/10		요한 신학에 나타난 영성 이상훈 박사(서울신대 교수)
4/17		청교도들의 영성 원충현 박사(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4/24		오나단 에드워드의 영성 S. 로간 박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5/8		성령운동과 영성 김의환 박사(총신대 총장)
5/15		설교자와 영성 임영수 목사(영락교회 담임)
5/22		예식과 영성 정장복 박사(장신대 교수)
5/29		바울 목회와 영성 박형용 박사(합동신학교 교수)
6/5		기술사회와 영성 오성춘 박사(장신대 교수)

문의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울교회 사무국)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I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근신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3.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준비를 위하여
4.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